

닛신보의 인도네시아공장

방직증설로 면직물 품종 다양화

◎ 니까와공장은 5만추규모의 제2공장 가동으로 흑자화 추진

닛신보가 73% 출자한 인도네시아의 “니까와·텍스타일”은 그 동안 경영하면서 적자를 내거나 잘해야 수지가 엇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년(2003년)에는 정방기를 증설하여 고부가가치제품의 품종을 늘리고, 규모의 이점(scale merit)을 살려 흑자화할 계획이다.

닛신보는 작년까지 “니까와·텍스타일”로 하여금 3만추의 정방기로 순면코머사 30수 단사, 40수 단사, 50수 단사를 뽑아 10가지 품종의 면직물을 생산해 왔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정방기 5만추, 연사기 2만추를 갖추고 있는 제2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하고, 폴리에스터/면 혼방사, 면고울혼방(CVC)사 뿐만 아니라 순면 80수 연사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순면 80수 연사의 생산규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안되는 공장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생산되는 실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었으므로 직물의 종류도 종전의 배인 20품종으로 늘렸다.

작년에는 계절에 따른 수요의 2~3개월 앞 소재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선물(先物)계약이 순조로워 3~4개월 앞 소재의 계약을 받고 있다. 다만 원면가격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물계약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니까와가 생산하는 직물의 50%는 인도네시아 국내로, 20%는 일본, 10%는 유럽, 20%는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공급해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내용 중 60%는 닛신보의 직포·가공 합판인 “기스텍스·닛신보”로 공

급된다.

또한 일본으로의 직물은 대부분이 닛신보로 공급된다. 기스텍스가 니까와의 전 직물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니까와 텍스타일의 총 직물 생산량 중 50%를 닛신보 그룹이 처리하는 결과가 된다.

◎ 기스텍스, 면직물의 다양화로 구미 수출 등을 촉진

닛신보가 60%를 출자한 인도네시아의 직포·가공 합판 공장인 “기스텍스·닛신보·인도네시아”는 “니까와·텍스타일”이 생산하는 실의 품종을 다양화함에 따라, 순면 가공직물을 중심으로 직물의 품종도 다양화하여, 그 동안 중단되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을 회복시키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채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스텍스는 98년에 조업을 개시하여 2002년도에는 흑자화하려 하였으나, 순면 직물의 주요 판매대상이었던 미국 시장의 불황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대신 유럽으로 폴리에스터/면 혼방 가공직물(규격품)을 수출하였다. 그런데 원면시세가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됨으로써 2002년도에는 흑자경영에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기스텍스의 가공 원단은 50%가 일본으로, 30%가 미국으로, 15%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예전에는 대미수출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순면 가공직물은 미국으로, 폴리에스터/면 혼방 가공직물은 일본 및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판매 가공 원단의 품종별 구성비가 폴리에스터/면 혼방 가공 원단이 70%, 순면 가공 원단이 30%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니까와·텍스타일이 생산하기 시작한 순면 80수 연사와 기스텍스의 이지·케어(easy·care)가공 등을 무기로 미국의 고객들과 다시 거래를 시작하고, 유럽으로의 순면 가

공 원단 수출을 확대하여, 미국지역으로의 순면 가공 원단의 구성비를 종전의 50%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기스텍스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공 원단의 80%와, 기타 나라로의 20%가 모두 닛신보의 주문에 의한 것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스텍스의 총 생산량의 50%정도를 닛신보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닛신보의 주문으로 그 동안 활발치 못하였던 니까와의 조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나머지 생산 여력도 어떻게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느냐가 기스텍스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